

KIA 황동하, 5이닝 무실점 호투...부상 걱정 지웠다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KBO 시범경기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선발투수로 등판한 KIA타이거즈 황동하가 역투하고 있다. 사진제공=KIA타이거즈

두산전서 선발 등판...1피안타 4볼넷 완벽투 3루수 출전 김도영, 2타수 1안타 1볼넷 활약



KIA타이거즈가 투수 황동하가 시범경기 경기에서 완벽투를 펼치며 다가오는 시즌 기대감을 높였다.

황동하는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KBO 시범경기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선발투수로 등판, 5이닝 1피안타 4볼넷 무실점으로 쾌투했다.

그는 1회말 상대 박찬호와 정수빈을 뜬 공으로 처리하며 아웃카운트를 빠르게 채웠다. 이어 카메론에게 볼넷을 내줬으나, 양의지를 범타로 잡아내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막았다.

2회말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상대 선두 타자 김인태를 땅볼로 돌려세운 뒤 양석환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이후 오명진과 이우찬을 나란히 뜬공으로 처리했다.

황동하는 3회말 상대 첫 타자 김민석에게 안타를 맞았다. 그러나 박찬호에게 병살타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고, 정수빈까지 땅볼로 잡아내면서 무실점을 이어갔다.

4회말에는 실점 위기가 찾아왔다. 황동하는 카메론과 양의지를 연속 볼넷으로 출루시켰다. 무사 1-2루 상황에서는 김인태를 뜬공으로 잡아내며 한숨을 돌렸다. 이어 범타 2개를 얻어내는 침착한 투구를 보여줬다.

5회말에도 마운드에 오른 황동하는 범타 3개로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면서 투구를 마쳤다.

이날 총 72개의 공을 던진 황동하는 직구와 슬라이더 등으로 상대 타선을 요리하며 견제함을 뽐냈다.

앞서 황동하는 지난해 5월 볼의 사고를 겪었다. 인천 원정 숙소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 그대로 황동하를 덮쳤다. 그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고, 오후 2:30분 황동하가 골절 소견을 받았다.

전지 6주의 큰 부상. 심지어 빠가 빠르게 붙지 않아 재활이 생각보다 길어졌다. 황동하는 이후 9월 23일에서야 1군에 복귀했다. 후반기에 5경기를 추가로 뒀던

시즌을 마무리했다. 최종 성적은 18경기 35.2이닝 1승 2패 평균자책점 5.30.

올해 비시즌 기간에는 5선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훈련에 몰두했다.

비록 지난 16일 NC다이노스와의 시범경기 첫 등판에선 4이닝 6피안타 4실점으로 흔들렸으나, 이날 두 번째 등판 경기에서는 호투를 펼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KIA는 이날 황동하에 이어 이형범, 이태양, 김시훈, 조상우가 차례로 등판하며 각각 1이닝 무실점으로 팀의 무승부를 지켰다.

마운드에서는 맹활약이 펼쳐진 반면 타선은 3안타를 때리는 데 그치면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KIA는 윤도현(1루수)-오선우(우익수)-김도영(3루수)-나성범(지명타자)-카스트로(좌익수)-김선빈(2루수)-김호영(중견수)-한준수(포수)-데일(유격수) 순으로 타선을 짰다.

지난 시즌 세 차례 헛스윙 부상으로 30경기 출전에 그쳤던 간판타자 김도영은 이날 3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1안타 1볼넷 활약을 펼쳤다. 이어 카스트로 김선빈이 각각 3타수 1안타를 치는데 그치면서 양 팀 모두 득점 없이 0-0 무승부 경기를 마쳤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동계체육 새로운 희망...더 큰 도약 나선다”

전국동계체전 광주 선수단 해단 12위 달성...전년 대비 36점 상승 이준재 호광중 교장, 공로 감사패



최근 광주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07회 동계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07회 동계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해단식은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박찬국 광주스키협회장, 송수현 광주컬링연맹회장 등 종목단체장과 임원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단 영상 시청, 입상선수 포상금 지급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컬링 남자 15세 이하부에 처음 참가해 광주선수단의 첫 동메달을 획득한 광주체육중학교(김현호, 박해성, 유태민, 임강민) 팀이 포상금을 받았다.

이준재 광주호광중학교 교장(전 광주체육중학교)은 하계 중심의 훈련 환경 속에서 동계종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

도를 통해 학생 선수들의 종목 참여 기회를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체육중학교 선수단의 값진 동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광주 동계체육의 새로운 희망을 증명했다”며 “제108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는 더 큰 도약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선수단은 올해 동계체전에서 전년 대비 36점 증가한 195점을 획득하며 종합순위 12위를 차지, 목표를 달성했다. 제103회 대회 14위를 시작으로 제104회·제105회에서도 13위, 제106회에 이어 올해 제107회 대회에서도 12위를 유지하며 동계종목 활성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단계적인 성과 향상을 입증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장애인체육회, 장애·비장애 ‘어울림 체육’ 추진

통합체육교실 지원사업 13개교 선정...2600만원 확보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체육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제공=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체육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인 '2026년 통합체육교실 지원사업' 선정 결과, 전남 지역 13개 학교가 최종 선정돼 총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은 올해도 지역 내 다수 학교가 대거 선정됨에 따라 전남형 어울림 체육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선정된 각 학교에는 200만원씩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체육활동을 통해 서로의 벽을 허물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어울림 체육’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매년 진행되는 이 사업은 학교 현장의 체육 및 특수교사가 직접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며, 선정된 학교들은 학기 중 최소 20회 이상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

이 자연스럽게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체육교사 직무연수’를 수료한 교사가 배치된 학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있으며, 연수 미수료 교사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춰 현장의 참여를 독려했다.

확보된 예산은 통합체육 수업에 특화된 전용 교구 구입과 원활한 수업 운영비로 전액 사용돼 학교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곽춘섭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난해 해남 송지초등학교가 전국 우수 통합체육교실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만큼,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13개 학교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뜻깊은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며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운동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소통하는 평등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전남이 통합체육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종국 전 KIA타이거즈 감독이 지도하는 '리틀 레인보우 야구단'이 지난 21일 광주 윤남중합운동장에서 1기 창단식을 개최했다.

김종국 전 KIA 감독 '리틀 야구단' 창단

이주배경 청소년 구성 리틀 레인보우 야구단 1기 출범 전직 프로선수·지도자 참여...14명 3개월간 주 1회 훈련 “유소년 야구 저변확대·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이룰 것”

김종국 전 KIA타이거즈 감독이 지도하는 '리틀 레인보우 야구단'이 지난 21일 광주 윤남중합운동장에서 1기 창단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창단식에는 박해원 광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1·2동), 이종범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한은회) 회장, 김종국 전 KIA 감독을 비롯한 야구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단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내빈 소개, 환영사, 운영 방침 안내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창단식 직후에는 단원들이 기초 체력 훈련과 투구·타격·수비 등 야구 기본기 교육에 참여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이번 리틀 레인보우 야구단은 야구를 접하기 어려웠던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

된 기초 자재 교육과 놀이 요소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지도자들의 재능 기부로 수준 높은 스포츠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야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활동을 넘어 국내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범 한은회 회장은 “이번 야구단 창단은 야구를 접하기 힘든 아이들이 종목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어린 친구들이 야구를 통해서 본인들의 꿈과 목표를 이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국 전 KIA 감독은 “스포츠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이들이 야구를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 나아가 유소년야구의 발전과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종목 저변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